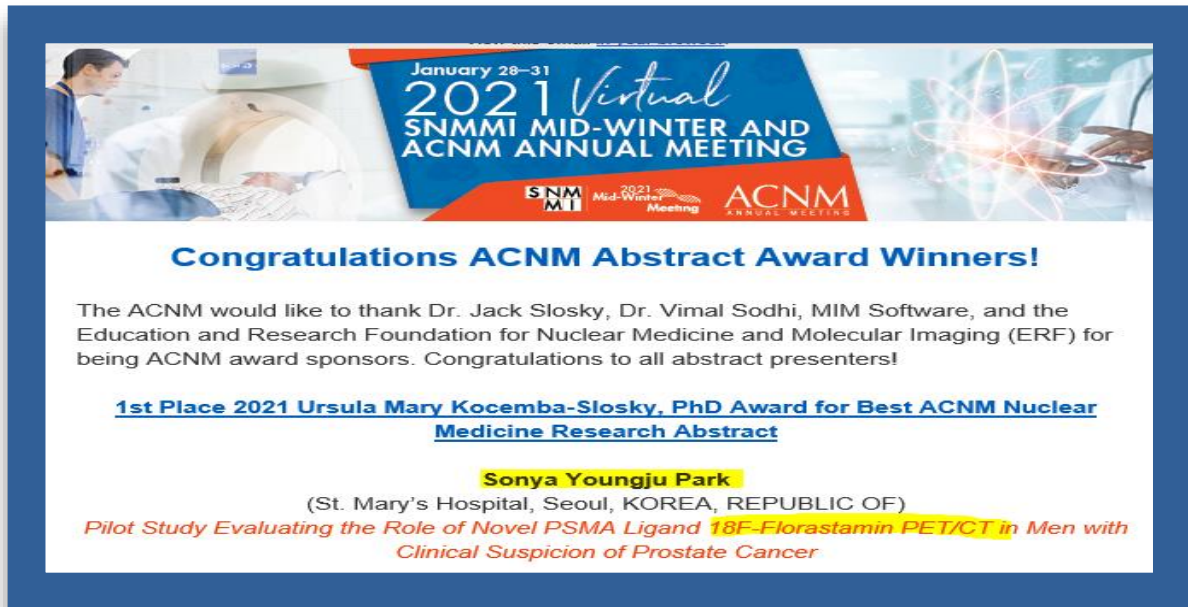


## 퓨처켄, 미국 ACNM 최우수 논문 연구상 수상!



<2021-02-15>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주)퓨처켄(220100, 대표 지대윤)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한 전립선암 진단 신약 FC303(플로라스타민)의 임상 1상 결과 논문이, 미국 핵의학회(SNMMI)와 ACNM(American College of Nuclear Medicine)이 공동 주최하는 학회에서 논문 연구상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 박영주(Sonya Youngju Park) 교수가 발표했다.

수상 연구 내용은 전립선암 진단 신약 플로라스타민의 임상 1상 결과다. 플로라스타민은 PSMA 표적 전립선암 진단제로, 병변 기준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가 MRI 대비 유의미하게 높아 전립선암의 정도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유망한 진단제 후보물질이라는 내용이다.

퓨처켄 관계자는 “전립선암 진단제인 플로라스타민은 국내에서 작년 11월 임상 3상을 승인받고 서울 수도권 6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임상 1상이 곧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 당사 파이프라인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전이된 거세 저항성(mCRPC) 전립선암 표적 치료제 후보물질인 FC705도 국내 임상 1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임상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